

전문상담기관 안내

기관명	주요사업	문의
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	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	02) 3144-1223
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	생활, 건강, 학업, 자립, 상담, 법률 등 지원	1388
성상담소	성폭력, 학교폭력 관련 아동 청소년·성인 상담	서울 02) 2688-1366 경기 031) 558-1366 부산 051) 753-1377 충청 041) 354-2366 전라 062) 521-1366 경상 055) 366-6676
여성폭력사이버상담	성폭력, 가정폭력,데이트 폭력, 성매매 등 피해상담 및 피해자 지원 정보제공	1366
해바라기센터	성폭력, 가정폭력, 성매매 피해자 365일 24시간 상담으로, 법률, 수사지원 통합 제공	서울 02) 3672-0365 부산 051) 224-1375 대구 053) 556-5117 인천 032) 423-1375 광주 062) 225-3117 대전 042) 280-8436 울산 052) 265-1375 경기 031) 217-9117 강원 033) 252-1375 충북 043) 272-7117 충남 041) 567-7117 전북 063) 278-0117 전남 061) 717-0117 경북 054) 278-1375 경남 055) 754-1375 제주 064) 749-5117
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	임신중 약물상담, 인공임신중절 약물 및 수술 관련 상담 등	1588-7309
정신건강복지센터	정신건강 위기 상담	1577-0119
다누리 콜센터	다문화 가족 교육 및 상담	1577-1366
대한법률구조공단	한부모 가족 무료 법률 상담	132
보건복지상담센터	보건의로, 사회복지 등 상담	129

인공임신중절 방법 및 합병증

진문기와 수술방법 및 절차, 사후관리, 정신적·신체적 합병증 등을 비롯하여 임신계획, 피임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.

인공임신중절 방법(수술, 약물 등)

수술방법	내용
진공 흡입술	- 임신 12~14주 이전의 여성에게 권장되는 수술이며, 완전 인공임신중절률은 95~100% 임 - 수술 전 자궁경관을 먼저 흡입성 자궁경부 확장제 등으로 인위적으로 확장시킨 후 진공을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5~10분정도 소요 됨
자궁경부확장배출술(DE)	- 주로 임신 12~14주 이후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, 수태물의 부피가 큰 경우 시행함 - 진공흡입술과 작은 집게 같은 기구를 함께 이용하여 자궁의 내부를 비워내는 방법임
자궁경부확장소파술(DC)	- 수술전 자궁경부를 먼저 흡입성 자궁경부 확장제 등으로 인위적으로 확장시킨 후 자궁내의 임신신물을 기구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방법임
개복수술	- 심각한 자궁결핵이 있는 경우, 난관 결찰술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, 다른 인공임신중절술이 실패한 경우 자궁 절제술 또는 자궁결제술 시행

우리나라에는 약물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된 약제가 아직 없음

인공임신중절 수술 중 마취

-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앞서 적절한 통증관리 수단을 상담합니다.
- 수술 전·후에 진통 효과를 위해 진통제 투여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.
-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수면마취로 시행 가능하기도 합니다.
- 임신부의 상태나 임신주수에 따라 전신마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

인공임신중절 수술 후 관리

- 수술 후 출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-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를 사용합니다.
- 최소 2주 이상, 질분비물이 나오는 동안은 성관계를 피해야 합니다.
- 생리는 6~8주면 대부분 다시 돌아옵니다.
- 월경 나옴(2주 전에 배란이 되어 성관계시 임신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피임법(콘돔, 피임약, 자궁내장치 등)의 선택을 상의하여야 합니다.

인공임신중절 후 응급상황(의료기관 재방문 필요)

- 질 출혈이 두 시간 연속으로 한 시간에 두 개 이상의 디스크패드(클램프)를 착용하는 경우
- 진통제를 복용하였으나 지속적이면서 악화 양상인 귀어찌는 통증인 경우
-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는 경우
- 분비물에 악취가 나는 경우
-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등

인공임신중절 후유증

1) 신체적 후유증

구분	내용
출혈	- 자궁무력증, 자궁경부염상, 자궁천공 또는 잔류조직으로 인해 주로 발생함 - 일반적으로 흔하지는 않으며 인공임신중절의 1% 미만에서 발생한
자궁파열	- 인공임신중절 시술시 사용되는 기구가 너무 깊게 삽입되거나 태아의 산물을 긁어낼 때 사용하는 큐렛으로 인해 자궁이 파열될 우려가 있으나, 발생빈도가 높지는 않음
골반 골반염증성 질환	- 자궁내막염, 난관염, 난소염은 시술 전에 적절한 항생제 투여로 예방할 수 있으나 시술 후 약물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감염에 의해 여러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음
자궁경관무력증	- 자궁경부의 무리한 확대도 자궁입구가 약해져서 다음 임신시 자궁경부가 진통 없이 열려 조산을 유발할 확률이 높음
불안전 유산	- 태아나 부속물의 일부만이 시술 후에도 자궁 내에 남게 되는 경우 부패하여 심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함. 심한 경우 패혈증으로 산모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음

2) 정신적 후유증

구분	내용
우울증	- 인공임신중절 자체가 우울증 위험을 직접적으로 높이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있으며, 임신이전의 우울증, 자살사고, 학대경험 등이 우울증의 위험을 매개하는 인자로 여겨짐
불안	- 두 번 혹은 그 이상의 유산 혹은 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2배 가까운 정도의 불안을 대조군에 비해 느낀다고 알려져 있음 (Steinberg)
후회	- 인공임신중절 후 여러 감정이 교차할 수 있으며, 그 중 한 감정이 후회이고, 임신중절 후 느끼는 후회는 계획되지 않은 임신이 생긴 상황에 대한 감정으로 나타날 수 있음